조선일보 (第三種郵便物認可)

全收穫以上執賭 小作人呼怨漲天

수확고는반감소작료는불감 苛酷無比한日人地主

전남순천군읍내(全南順天郡邑內)화면원이랑(花田源二郞)은 지금부터수십년전에 전남구례(求禮)읍내에와서거주하면서고리대금에 종사하야 디방세민의 명매피가튼 엽마식이아니되는 토디동을주어모와 지금은 수백두락가진 대디주중의 한사람이되엿는데 금년봄에 전괴순편으로 이사하야사는중 씨는 금추의간평시(今秋看坪時)에친히와서간평을하얏는데 구례군 광의룡방량면(光義龍方兩面)에 산재한씨의소유답은 건답(乾畓)과 토질이조치못한것이만흠을불구하고 씨는 례년다름상등토디가진 디주이상의 소작료를바듬으로 그외소작인들은 속쓰린봉을 당하면서도하는수업서서그나마소작을 계속하여오던중 더욱이금년에이르러서는 씨의논은 거개만흉작서중을하엿는까닭에 수확이례년에 비하야 절반이상이감하얏슴으로 작인들은 디주의간평오기를 고대하고잇다가 마츰디주가 간평을왓슴으로 소작인들은 자긔의힘을다하야 디주를대접하고 금년농형을 저저히말하고 소작료를뎍당히감하여달라고한즉디주는자긔집에도라가서뎍당히하겟다대답하고 그대도도라가서 그뒤에 소작료납입통지(小作料納入通知)를각소작인에게 보내엿는데 전부작년대도 납입하라하엿스매 소작인들은 전수확을다하야도 소작료가부족하겟다고 대경실색하야 선후책을 강구할도리가업서서 다각기자긔의 빈곤할만한란하며 회전디주의 가혹무리함을원망하는소리가놉다더라(구례)

赤化宣傳員潛入

各區警甲隊에嚴命 봉텬서장명령을바다서

안동현공서(安東縣公署)에서는 최근봉텬성장으로부터 온밀뎐(密電)에의하야로서아인적화선뎐원(赤化宣傳員)이 북만주 방면으로부터 안동현에 들어가는지도 알수업스니 엄중히취톄하라고 각구경갑대(各區警甲隊)에엄명을나리엿다더라(신의주)

育英盟休事件 圓滿解決

다시개교키로

안주군연호면남이리(安州郡燕湖面南二里)에잇는육영학원(育英學院)에서는 여러가지불완전을늣기는 학생권톄가 동맹퇴학을하고 요구됴건까지 데출하엿다함은이미보도한바어니와그로인하야 일개월간이나 교수를뎡지하게되야일반임원의노력으로 각방면에활동한결과 지난 칠일 임원회를열고 학생측과토의한결과 원만히해결되며 본월하순부터 개교하기로하얏는데 강당은남흥리(南興里)로이전하며 교무총감독(校務總監督)으로정찬철(鄭燦哲)씨와 강사로는조백주(趙白洲)량씨를선뎡하야목하관계당국에교섭중이라더라(안주)

證人을申請 康基寶公判에

루보=평양고아원에서일을보든 강긔보(康基寶)씨의 공판은 지난십팔일 오후한시경에 평양디방법원데이호법정에서 황권(荒卷)판사심리와하촌(下村)검사의 립회하에 공판이열리엿는데 피고는 다만책자에서본몃구절을 무의식적으로 외엇슬뿐이요 별로현대제도를 파괴하겟다는 의식이잇게 말한것은아니라고 부인함으로 변호인김지건씨로부터 피고와가티잇든 림문석(林文錫)이라는사람을증인으로 오는이십구일에불러평상시의거동과 사상을 조사키로하고또두

시경에때넝하엿다더라(평양)

非難밧는 報恩內上面長

도급긔애흡을편취한사실로

충북보은군 내북면(忠北報恩郡內北面) 면장 김영권은 그면설시부터 원회계오로잇서공파금(公課金)을취리하여오든바 대정팔년도에 와서는 그면관내 동리마다 도급긔(稻扱機)한개식배부할터이니 대금삼십구원식을 납부하라고 공문을 이회나 발부하야 동리마다삼십구원식을 징수한일이 잇섯는데그때마츰 김영권은그면 면장이되고 면직원이 만히이동이되매 김영권는 발부한문서장부를 업새버리고 지금까지아모조처가업슴으로 면민들은 김면장의태도가 너무나 이상하다하야 욕심무슨 하면무슨증거가 잇느냐고 말할뿐아니라 도리혀 면민이다고 위협하며 언사를감행함으로 면민은 겁이나서질문한마디를못하고 자긔동리 구장에게 물으면 오래동안이라잘생각이나지안는다고 모호한 대답을함으로 일반면민는 불평으로지내다더라(청주지국특파원조사)

命在頃刻한 安州青年會館

채무를판상치못하야서 채권자는최후수속리행

삼일운동(三一運動)이잇슨후안주유지(安州有志)들의발긔로안주청년회(安州青年會)가조직되엿는데당시에는회원이오륙백명에달하야 실로 전도가양양하얏슴으로도 일반유지인사들에게 회관건축(會館建築)긔부금을모집하여가지고 즉시 굉걸한회관을락성하엿스나 긔부를 쾌히승락하고도 그금액을 [illegible] 이지잇는사람이잇서서 회관건축비가 부족하게되엿바하는수업시긔채(起債)를 하게되엿는데 청년회라는그런데의 명의로는 금

곳집잇는 몃몃청년이 다시약수하야가지고 회원을 전부정리하엿든바 그후 정회원으로약삼사십명이 명부록에 긔록되여잇슬뿐이요 사실내용으로는 오륙명위원들이 아직까지 회명을유지하여올뿐인데 안주 중개조합에서는 전회장고김뎡선씨의 수형을 밧고주엇던 원금이백원을지금까지 사오년동안을 지불하지안는다고 고김뎡선씨 유족에게 지불명령을 지나간집팔일부로 평양디방법원 안주지텽

愛妻는背叛聘母는逐出 路上에서吐血橫死

相互推托하는官廳 住元民의請求反對는何故

東拓會社農監을 小作人이告訴提起

露領事舘全燒

自働車轉覆으로 漁父가墜落慘死

七十老人이 世上悲觀自殺

學位賣買하든者 十個月만에有罪

列車에치어 平澤驛서一名死傷

刑事까지請해노코 料亭에서和解要求

搾取心만흔地主 一般小作人非難不少

乘夜逃走

五十圓詐欺

偽造犯公判

技競動運

戊午安岳軍과 崇德軍勝利

決勝은廿日